

01 교회소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권능을 체험한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소중히 일구며 각 분야에서 수상으로 영광 돌린 이야기.

02 생명의 말씀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신 섭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대속해 주시려는 한없는 사랑이었다.

03 기획특집

이동하는 별, 그 의미는?

천체의 질서를 깨뜨릴 수 있는 별의 이동. 그렇다면 동방박사를 아기 예수님께 인도한 별의 이동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04 간증

“체험하는 신앙, 행복합니다~”

간호사로서 하나님 권능을 체험하며 축복이 넘친다는 장은아 집사와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했다는 몽골 너를허수렌 자매 간증.

만민뉴스

제741호 2016년 6월 5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삶의 원동력입니다!”

각 분야에서 수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성도들



1.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송호기 집사 2.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역도부문 금메달 문광식 집사 3. 전국무용예술제 금상 박은혜 자매 4. 전국 남녀종별 펜싱선수권대회 고등부 남자 사브르 개인전 우승 김현규 형제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진하늘 아동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한국음식관광협회장상 장옥례 집사 등 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각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받은바 은혜를 잊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성실로 직무를 삼으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다.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면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초등학교 영어부장 교사인 송호기 집사(51세, 한양대부속 한양초등학교 교사)는 지난 5월, 제35회 스승의 날을 맞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올바른 교육관과 사명감으로 사도를 실천하고 교육 혁신 분야의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사진 1).

송 집사는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했더라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제가 이제는 천국 소망으로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학생들을 대할 때도 주님의 귀한 영혼들로 보이니 대충 가르칠 수가 없더라고요.”라고 말했다.

시각장애 1급인 문광식 집사(65세, 3대대 23교구)는 주님께서 주신 천국 소망이 있기

에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이기며 자신의 분야에서 분발하여 수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지난 5월, 제6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역도부문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해 3관왕이 된 것이다(사진 2).

문 집사는 “제 양쪽 눈이 망막색소변성증으로 형체가 움직이는 정도만 보입니다. 이미 완전히 실명되었을 텐데 교회에 출석한 2003년부터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들 같은 젊은이들도 있는데 65세 나이로 금메달을 획득하니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라고 간증했다.

2016 CK위원회 주최 제18회 전국무용대회 한국전통분야에서 1등을 차지한 데 이어 지난 5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 사단법인 중앙무용문화연구원 주최 제92회 전국무용예술제에서 금상을 수상한 박은혜 자매(19세,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3학년)에게 수상 소감을 묻자 간증을 들려주었다(사진 3).

“저는 엄마 배 속에서 8개월 만에 태어난 데다가 폐결핵까지 걸려 죽을 뻔했는데 당회장님 기도로 살아나서 이름이 ‘은혜’이니

다. 뒤늦게 무용을 시작했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니 짧은 기간에 눈에 띄게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대회 나가기 전에는 항상 당회장님 자동응답서비스 환자기도를 받고 출전하는데 이번에도 좋은 상을 받게 되었지요.”

김현규 형제(19세, 발안바이오과학고등학교 3학년)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당회장의 기도를 받고 출전해 5월 7일, 제54회 전국 남녀종별 펜싱선수권대회 고등부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우승하여 영광 돌렸다. 주 안에서 확실한 꿈과 비전을 갖고 이를 이루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정진해 나가는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 권능을 체험함으로 얻어진 금보다 귀한 ‘믿음’이다(사진 4).

지난 4월, 제49회 과학의 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을 받은 진하늘(13세, 정재초등학교 6학년) 아동 역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바 있다고 했다(사진 5).

“저는 네 살 때 심한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손을 묶고 자야 할 정도였는데, 당회장님 기도를 받고 깨끗이 치료됐어요. 제 꿈은 하나

님 나라에 쓰임받는 동시통역사로, 영어와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늘 자매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학생의 본분에도 충실해야 한다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가르침대로 학업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보여 왔으며, 올해 전교 어린이 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

이 밖에 장옥례 집사(47세, 4가나안선교회)는 지난 5월 7일, 제17회 한국음식관광박람회 내 한국국제요리경연대회 한국음식전 시경연 부문에서 함께한 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과 한국음식관광협회장상을 수상해 영광 돌렸다(사진 6).

이처럼 만민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소중히 가꾸고 최선을 다해 곳곳에서 빛을 발하여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생명의 제단으로 인도해 주셔서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소망을 주신 은혜, 반드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열매가 되리라는 간절함 때문이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24)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신 십리

씀하시며,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 치료받았다 해도 다시 죄 가운데 살면 이전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긴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질병의 근원은 죄로 인한 것이며,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기에(히 9:22) 예수님께서 아무 죄없이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2.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마음에서 믿고 입술로 고백해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심을 마음에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연약함이나 질병으로 고통받을 이유가 없습니다(마 8:17).

간혹 “나는 연약해 범죄할 때도 있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는 힘들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했습니다. 치료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강건하며 성령 충만하다.” 고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 피곤도 능히 이기며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지요.

우리가 치료받고자 기도받을 때 “기도 받았으니 나를 줄 믿습니다.”가 아닌 “이미 나은 줄로 믿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흑자는 “여전히 아프데 나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닌가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믿음이 무엇인지 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한 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랄 때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데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을 입술로 고백할 때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병과 연약함이 떠났다.”고 마음에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 믿음대로 치료의 주님께서 창조주 하

님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치료의 주님을 믿지 못하면 마음에서 ‘아직 낫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여전히 아픈 것이며,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3.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치료받지 못하는 이유

그러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질병을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한다 해도 하나님의 의를 좇지 않는다면 치료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애굽은 영적으로 ‘세상’을 말하며 출애굽 당시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은 ‘세상의 모든 질병’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 계명’을 지켜 행하면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으며 흑시 질병에 걸렸다 해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기 보기에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 의가 다르지요. 태어나 자라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A라는 사람이 의롭다 하는 것이 B라는 사람 편에서는 불의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의롭다하신 것이 참으로 의로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밖에서 놀던 자녀가 매를 맞고 집에 들어오면 어떤 부모는 속상해서 상대를 찾아가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대어 줘라, 화평을 좇으라,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좇으면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높여 주십니다.

흑자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말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므로 능히 할 수 있다.”고 믿고 행하면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본다면 능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나는 버려야 할 죄가 너무 많은데 언제 다 버릴까?’ 생각한다면 제일 버리기 힘든 죄를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금식하여 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치 큰 뿌리를 뽑아내면 잔뿌리들도 한꺼번에 뽑히는 것처럼 나머지 죄들도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버리면서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이 헐어지고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치료의 주님을 만났으니 모든 질병을 깨끗이 치료받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범사에 의지함으로 마음껏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신 십리는 무엇일까요?

1.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참혹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기 전에 온몸에 채찍을 맞아 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한 상처를 입고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건장하고 잘 훈련된 로마 병사가 채찍을 휘두르면 몸을 휘감으며 채찍 끝의 납덩이가 살을 찢고 몸속에 박혀 다시 채찍을 낚아챌 때 살점이 묻어 떨어지는 끔찍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수없이 채찍에 맞아 큰 고통을 받으시며 피를 흘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사야 53장 5절 후반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한 대로 모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기 전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는 “... 보라 네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경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일월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는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
우리가 사는 우주 공간에서
별이 이동한다면?

만일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이 이동한다면 천체의 질서를 깨뜨림으로 인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는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별의 이동에 대해 살펴본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별들은 오직 중력의 법칙에 따라 정확히 운행한다. 따라서 갑자기 새로운 별이 나타나 이동하여 어느 순간에 멈춰 그대로 머물러 있는 현상은 사실 금성이나 목성, 토성 같은 행성, 아니면 초신성이나 혜성으로도 설명이 안 된다.

행성은 새롭게 나타난 별이 아니며, 초신성은 폭발에 의해 새롭게 나타나긴 했지만 육안으로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동하지는 않는다. 반면 혜성의 경우, 이동은 하지만 정지하지는 않는다. 그 외에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성들은 태양을 제외하고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켄타우루스자리 알파 센타우리 별까지는 거리가 약 4.2광년이다. 1초에 30만 km 즉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빠른 빛의 속도라도 무려 4년 이상을 줄곧 가야 그 별에 도달할 수 있다. 만일 그 별이 움직이는 것을 지구에서 방금 관측했다면 이미 4년 전에 그 별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이제야 보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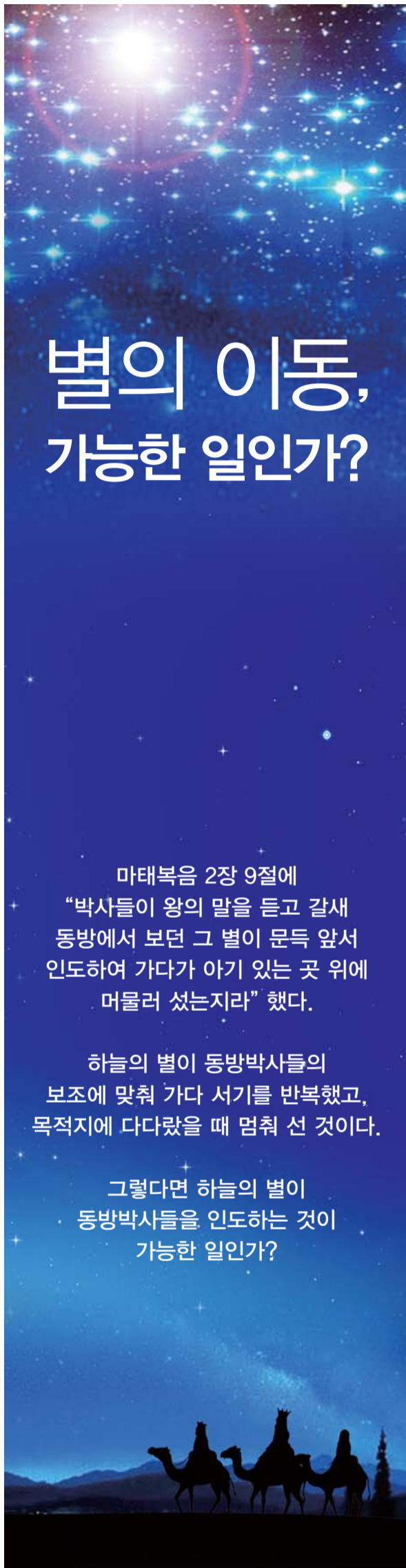
★★★★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의 공간을 열어 주시면
그 공간에서는
별의 이동이 가능하다!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외에도 여러 하늘이 있음을 알려준다(왕상 8:27 ; 대하 2:6, 6:18 ; 느 9:6 ; 시 68:33 ; 사 34:4 ; 렘 4:23, 10:12, 51:15). 여러 하늘은 크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하늘과 우리가 사는 육의 세계의 하늘로 나눌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속한 우주 곧 육의 세계의 하늘이 첫째 하늘이며 둘째 하늘부터는 영의 세계에 속한다. 둘째 하늘에는 에덴동산이 있는 빛의 영역과 악의 영들이 존재하는 어둠의 영역이 공존한다. 셋째 하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장차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의 공간을 말한다(고후 12:2~4). 넷째 하늘은 태초의 하나님께서 공간을 분리하시기 이전에 홀로 계시던 근본의 하늘을 의미한다.

이러한 '하늘들'은 엄밀히 구분되지만, 각각의 공간이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첫째 하늘의 공간에 둘째 하늘의 공간의 문이 열리기도 하며, 때론 셋째 하늘, 넷째 하늘의 공간이 열릴 수도 있다.

첫째 하늘의 별들은 설정된 경로대로 질서 있게 운행한다. 따라서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별은 첫째 하늘의 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영의 공간을 열어 둘째 하늘의 별을 움직여 보여 주시니 첫째 하늘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고도 동방박사들의 눈에 이동하는 별이 보였던 것이다.



마태복음 2장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했다.

하늘의 별이 동방박사들의
보조에 맞춰 가다 서기를 반복했고,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멈춰 선 것이다.

그렇다면 하늘의 별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
영의 공간이 열린 사건들

성경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 유향과 불(창 19:24),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한 불의 응답(왕상 18:37~38)도 이와 같은 이치이다. 하나님께서 둘째 하늘의 공간을 열어 첫째 하늘의 것을 직접 태우고 사르신 것이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테반 집사가 말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했고,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사도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고 그곳에서 울려 나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고 했다. 또한 시편 78편 23~24절에는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는 주님께서 공중강림하실 때에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실 때는 항상 구름이 나타났다(출 19:9).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도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행 1:9) 했다. 구름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바로 영의 공간을 통해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신 것이다.

These days

▲ 영상 캡처 : 2000년 전라남도 무안에서 있었던 주의 종교 교육 및 선교회 별 수련회 시, 구름이 걷히면서 유난히 반짝이는 별들과 유성들, 그리고 특별히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별들의 움직임을 이해할 수 있는 기사를 목도할 수 있었다.

▲ 영상 캡처 : 2012년 9월 17일, 이스라엘 갈릴리에서 우리 교회 선교팀은 별의 이동을 목도할 수 있었다.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6. 6.5~ 6.11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우리가 바라볼 것 ■ 순전 1-3
- 사랑장 13-17 ■ 십계명 3-9
- 창세기 강해 46-50 ■ 선 6
- 믿음의 분량 22-26
- 일곱교회 8-13
- 심고 거두는 법칙 3-4
- 헛되고 헛되니 1-2

GCN TV설교

- 변화의 힘 (이수진 목사)
- 막달라 마리아 3 (이미경 목사)
- 영의 세계 48 (이희선 목사)
- 욥기 강해 15 (신동초 목사)
- 열재앙 17 (정구영 목사)
- 위로부터 난 지혜 5 (김수정 목사)
- 영의 공간 4 (천우진 전도사)

예능 프로그램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기) 17
- 알콩달콩 어여쁜 율동 58
- 내 마음의 찬양 33
- 창조와 과학 3 ■ English 15
- 모두 드려요 50 ■ 뷰티풀라이프 1
- 즐거운 요리 8 ■ 흥겨운 소리 3
- 옛날 옛적에 14 ■ 플로리스트 4

해외성회 프로그램

- 뉴욕 연합대성회 2
- 믿음으로 걸어온 길 1
- 희상 (시즈진) 1

GCN TV 채널
kt allehtv 882번

“참된 신앙생활을 하니 저희 가정에 간증이 넘칩니다!”

장은아 집사 (54세, 3대대 23교구)

외과 병동의 수간호사였던 저는 의사인 채윤석 장로님이 전해 주신 주보를 읽고 우리 교회로 인도받았습니다. 오랜 천주교 신자였지만 주보에 실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는 세상이야기가 전혀 가미되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 말씀이었고, 부드러운 카스테라를 입에 넣은 듯 단숨에 읽었습니다.

2002년 11월, 만민중앙교회를 처음 방문한 저는 당일로 만민의 양 떼가 되었지만 천주교 신자로 신앙생활 하던 습관을 벗지 못한 채, 친정어머니와 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운 지성전에서 주일 대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때를 좇아 권능을 체험케 하시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지요.

오래 전 왼쪽 목에 선천성 낭종 제거 수술을 받은 후로 얼굴 왼쪽이 마비되어 감각이 없었는데, 등록 후 얼마 안된 어느 날, 왼쪽 얼굴의 멍멍한 느낌이 없고 화장품을 바를 때 잘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치료된 것입니다. 또 예배를 드리면서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로 메니에르 병을 치료받기도 하였지요. 이러한 역사를 체험하고도 여전히 ‘말씀대로 살아야지, 기도해야지.’ 늘 생각을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25일,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빛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을 호소하시는 당회장님의 간절한 모습에 마침내 저도 결단하였습니다. 온전하지 못했던 신앙생활을 통회자복 하고 기도생활을 시작하였지요. 그러자 삶의 문제들 이면에 담긴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섬기고 낮아지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오랫동안 소원하던 일이 너무나 쉽게 응답되었습니다.



2011년 5월, 남편이 장모님 부탁에 흔쾌히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술, 담배도 자연스럽게 끊고 예배와 다니엘절야 기도회는 물론 각종 모임에 참석하였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남편 덕분에 가족이 본당으로 가서 주일 저녁예배까지 드리며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8월, 만민하게수련회에 참석해 친정어머니는 오른쪽 어깨관절 통증과 팔이 돌아가지 않는 증상을 치료 받으셨습니다. 저는 햇빛 알레르기를, 남편은 왼쪽 종아리 통증 등 여러 질병을 하나님 권능으로 치료받았지요.

이처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2016년에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26년 차 간호사로 현재 대학병원에서 외래간호팀 팀장을 맡고 있는 저는 팀원들에게 더욱 사랑과 관심을 갖고 돕고자 했습니다.

또한 3월 말 ‘남·여성교회 헌신예배’를 앞두고 더욱 마음 다해 드리고자 했더니 대학교 간호학과 겸임교수로 임용되고, 건강보험공단 주관 차매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강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들도 기도생활을 시작하여 온 가족이 다니엘절야 기도회를 참석하는 축복을 받았지요.

만민 가족이 된 후, 당회장님의 환자기도와 무안단물(출 15:25)로 약과는 상관없이 살고 늘 보호받으며, 고집스럽던 제 성격도 온유하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다소 급한 성격이었던 남편도 편안하고 다정다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서로 존중해 주고 기다려 주며 천국 소망으로 달려가니 너무 행복합니다.

사건 사고 많은 요즘, 인간의 힘으로는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참 평안과 행복을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해요”

너를허수렌 자매 (23세, 몽골만민교회)

13세부터 양손에 많은 사마귀가 생겨 심한 가려움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저는 병원 치료도 받아 보고, 라마 불교나 민간요법 등도 의지했지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신장마저 좋지 않아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고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누워서 못 일어났으며 입원도 수차례, 한 달에 7일 정도는 아파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지요. 결국 수술을 받았지만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평소 몽골만민교회 근처를 지날 때마다 안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소리에 마음이 평안해졌고 매우 듣기 좋았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2013년 11월에 자진 등록하였습니다.

교회에 와보니 많은 사람이 기도를 받고 치료받았다는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몸이 안 좋아서 고생을 해 온 저는 그 소식이 너무나 반가웠고 저도 하나님께 치료받기 위해 하나하나 믿음의 행함을 내보였지요.

GCN방송(www.gcntv.org)을 통해 설교 후 해 주시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받으며, 권능의 무안단물(출 15:25)을 마시고 바르면서 때를 좇아 금식을 했습니다. 물론 각종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지요.



그러던 2014년 1월 25일,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손수건(행 19:11~12)으로 담임 맡겨진 선교사님에게 기도받을 때 온몸이 뜨거웠습니다. 그 뒤 통증이 없고 열도 나지 않으며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었지요. 양손에 그 많은 사마귀도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로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외에도 몽골 최대 사립대학인 이흐자사 국제대학교에 재학 중인 저는 ‘최고의 자랑스러운 대학생’ 상을 받았습니다. 청년부 부회장 등 하나님 일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공부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지요.

최근에는 웬지 마음에 버스를 타고 싶지 않아 안 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버스가 사고 당한 것을 알게 되었지요. 이처럼 모든 삶을 섬세하게 이끄시는 사랑의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왼쪽부터 남편 권민찬 집사와 장은아 집사, 친정어머니 함향도 집사, 그리고 딸 다혜 자매와 아들 단용 형제.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4182-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2290-7779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양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3330-3172
- 검정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탈로 95 ☎010-6355-1928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딩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